

제 3장. 시장과 경제적 후생

강창민

서울대학교 경제학부

2013년 8월 31일

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

- 1.1. 소비자잉여
- 1.2. 생산자잉여
- 1.3. 시장의 효율성

2 시장의 효율성 평가

- 2.1. 조세의 경제적 비용
- 2.2. 국제무역과 시장의 효율성

차 례

- 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
 - 1.1. 소비자잉여
 - 1.2. 생산자잉여
 - 1.3. 시장의 효율성

- ② 시장의 효율성 평가
 - 2.1. 조세의 경제적 비용
 - 2.2. 국제무역과 시장의 효율성

지불용의, 소비자잉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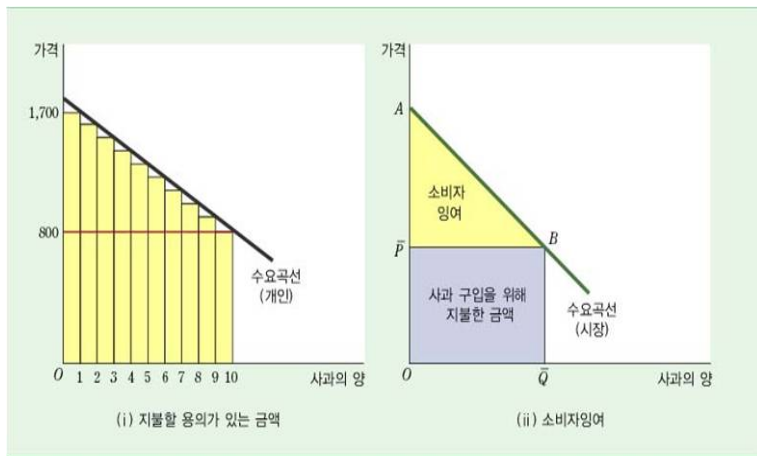
지불용의 (willingness to pay)

소비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. 수요곡선의 높이가 바로 그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의미함.

소비자잉여 (consumer surplus)

소비자의 지불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.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.

소비자잉여의 계산



한계비용과 생산자잉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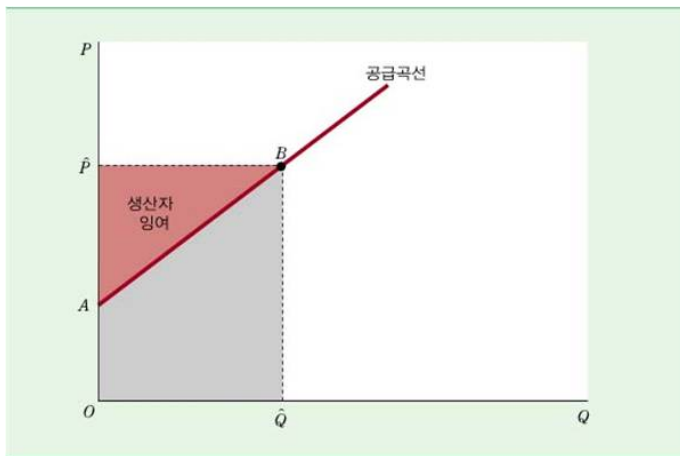
한계비용 (marginal cost)

생산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. 공급곡선의 높이는 바로 그 공급량 수준에서의 한계비용을 의미함.

생산자잉여 (producer surplus)

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신이 그만큼의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.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.

생산자잉여의 계산



총잉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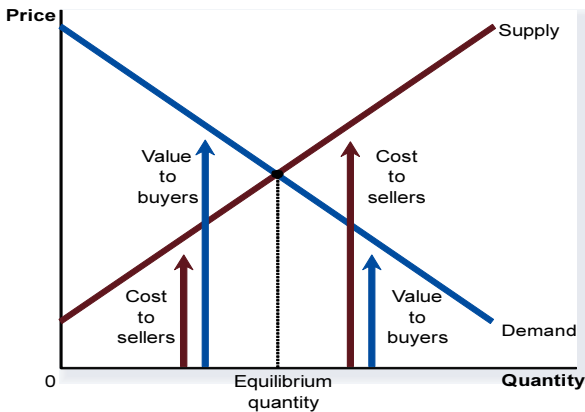
총잉여 (total surplus)

소비자잉여 + 생산자잉여.

- “소비자잉여 = \sum (지불용의) -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” 이고
“생산자잉여 = 생산자가 받은 금액 - \sum (한계비용)” 이므로 총잉여는
“ \sum (지불용의) - \sum (한계비용)” 과 같음.
- 총잉여를 **경제적 잉여 (economic surplus)** 또는 **순사회편익 (net social surplus)**이라고 하기도 함.
-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배분의 속성을 **효율성 (efficiency)**이라 하는데, 실제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할 때 총잉여의 크기를 이용함.

균형거래량의 효율성

-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수량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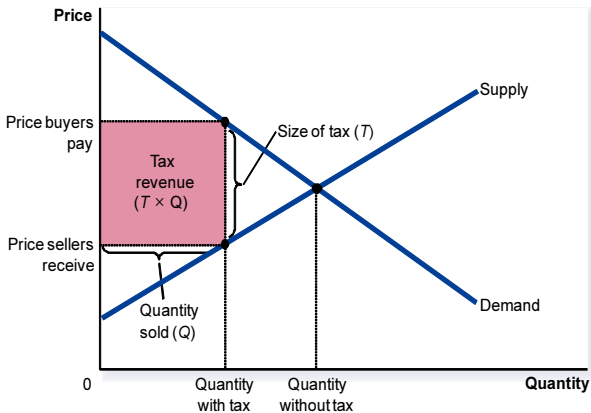
차 례

-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
 - 1.1. 소비자잉여
 - 1.2. 생산자잉여
 - 1.3. 시장의 효율성

- 2 시장의 효율성 평가
 - 2.1. 조세의 경제적 비용
 - 2.2. 국제무역과 시장의 효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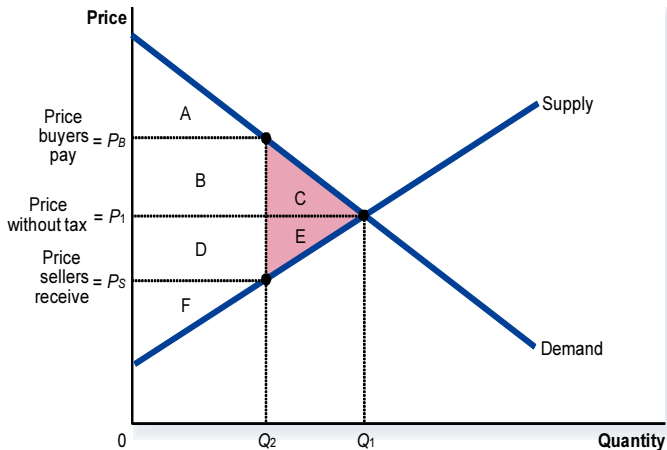
정부의 조세수입

- 재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량이 줄면서 총잉여의 일부분이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전환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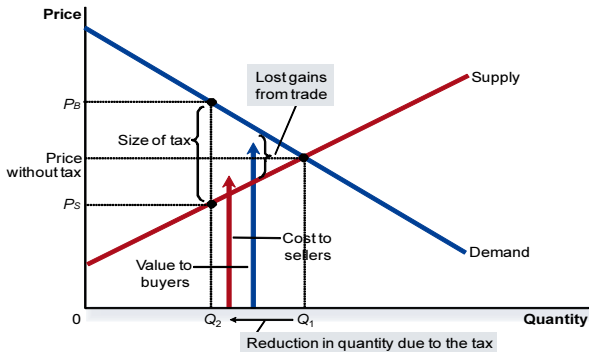
세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

- 세금 부과 후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$C + E$ 의 면적만큼 총잉여가 감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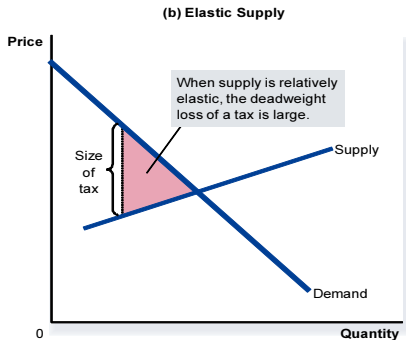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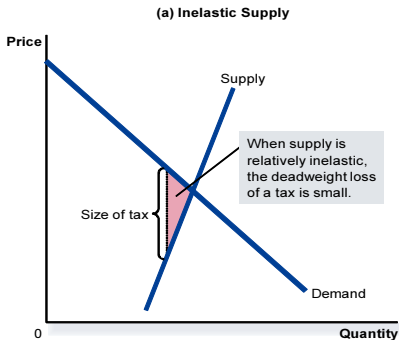
경제적 손실킬

- **경제적 손실킬 (deadweight loss)** : 시장의 왜곡에 의해 초래되는 총잉여의 감소분.
- 세금과 같은 원인에 의해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생산자의 한계비용보다 더 큰 상태 → (자유로운) 추가적인 거래에 의해 총잉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므로 비효율적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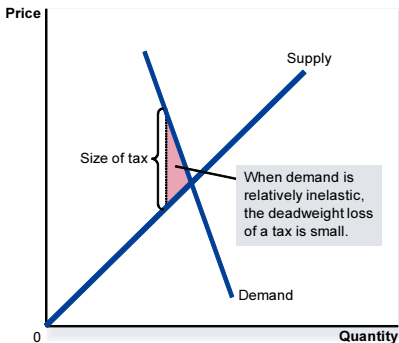
경제적 순손실과 가격탄력성 I

- 재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의 크기에 비례함.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순손실의 크기도 증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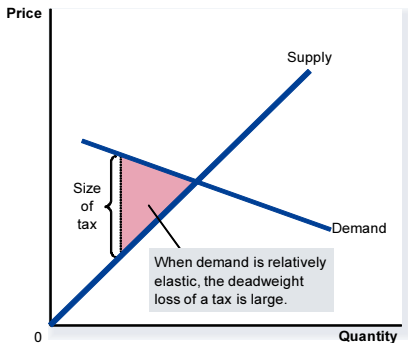


경제적 순손실과 가격탄력성 II

(c) Inelastic Dema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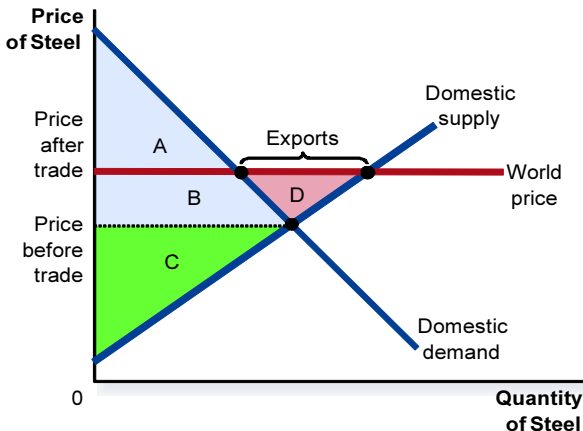


(d) Elastic Deman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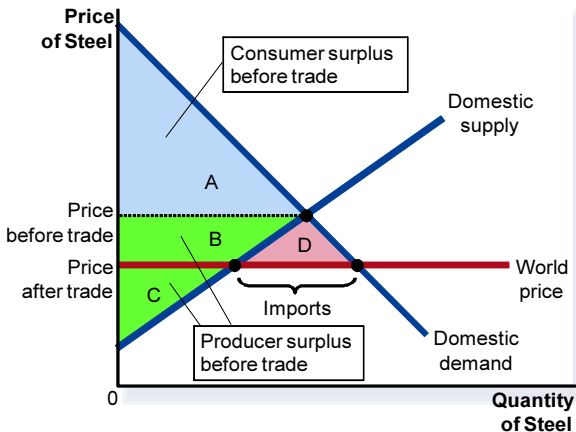
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

- 교역 이전 균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나라는 교역 이후 수출국이 됨. 교역의 이익은 삼각형 *D*의 면적에 해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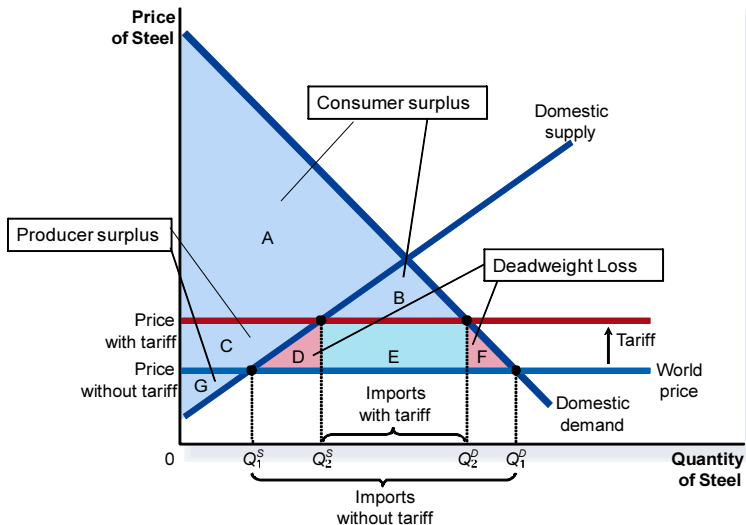


국제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

- 교역 이전 균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나라는 교역 이후 수입국이 됨. 교역의 이익은 삼각형 *D*의 면적에 해당.



관세 부과의 효과 I



관세 부과 효과 II

- 관세 (tariff)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, 수입국 국내의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관세 부과의 결과, 앞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증가, 수입량 감소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음.
- 그러나, 총잉여의 크기는 자유롭게 교역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$D + E$ 의 면적만큼 감소.

보호무역의 근거

-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: 실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, 외국에서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생산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내해야 함.
-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: “식량의 무기화”에 대비. 대규모 중공업 육성.
- **유치산업 (infant industry) 보호** : 학습효과 & 규모의 경제. 그런데, 어떤 산업이 보호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? 꼭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나?
-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응 : 사실 수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었다면 수입국 소비자들은 이익임.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**악탈적 가격설정 (predatory pricing)**은 거의 의미가 없음.
- 생산다변화의 이득 : 국민들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. 그리고 소수 상품 특화에 따르는 위험 회피.